세제용 효소

세제용 효소는 역가 4.0의 효소를 주로 사용했었으나 94년기준 태평양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이 역가 6.0의 고농축 효소를 첨가제로 사용하고 있어 그에 따라 사용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세제용 효소는 Alkaline Protease가 80%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Cellulase와 Lipase가 소량 사용되고 있다.
또 세제용 효소는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태평양이 자체개발에 성공해 300억원을 투입해 93년부터 생산에 들어갔으나 과립화를 이루지 못해 실용화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국내 세제용 효소시장은 Novo가 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IBIS · Solvay등이 나머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국내 세제용 효소시장은 92년 약 1000톤, 93년 800톤으로 약 25% 감소했으나 금액측면에서는 50여억원을 기록해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96 화학연감>